

곧 종강,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 "법적 마지노선 8월 초"

교육부, 이번 주 '복귀 대책' 발표
총장들과 교육 여건 개선 등 논의
교수 총원 등 의대 환경 개선 마련
정부, '동맹휴학' 신청 승인 불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및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달 중하순 대학 1학기 수업 종강을 앞두고도 대다수 의대생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며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신청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대생 복귀의 법령상 마지노선은 8월 초로 꼽힌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의대생 수업 복귀 대책을 발표하고 9월까지의 의대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2월 시작된 의대생 수업 거부가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의대생 중 현재 수업에 출석하는 학생은 10%도 되지 않는다는 게 대학 관계자 전언이다.

지난달 2025학년도 대학입학시험

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됐음에도 의대생 복귀가 요원한 가운데,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다"라며 "총장들이 협의체

를 구성해 교육부와 함께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최대한 협의하자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흥원화 경북대 총장을 주축으로 일부 의대 보유 대학 총장들은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를 결성했으며, 지난 7일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만나 의대생 복

귀 방안과 교육 여건 개선을 논의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의대생 수업 복귀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 대책 발표는) 대학 요청한 사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라며 "일단 이번 주까지 (의대생 복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일정에 변경이 있을 수는 있다"고 했다.

의대생이 유급되지 않고 복귀할 수 있는 시기로는 "법령상 마지노선은 8월 초 정도"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한은 남아있지만, 6월 안으로는 학생들이 돌아와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가급적 6월 안으로는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오는 9월까지의 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의대생들이 급격한 정원 증원으로 수업 질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는 만큼, 의대 교육 질 담보 방안을 제시해 복귀 계기를 만들겠다는 복안

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및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교육 환경 개선 및 선진화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1000명 총원, 강의공간 공사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이 담겼다. 자세한 방안은 조만간 제시하고, 9월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방안들이 의대생 수업 복귀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대학가에선 더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대를 보유한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의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이 실제로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대학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며 "학생들이 유급될 경우 법정 다툼까지 예상되는 상황으로, 집단 유급이나 휴학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AI·바이오·첨단산업 육성 기술개발 본격화

서울시, 미래선도 신기술 개발 지원
양재·홍릉·마곡 등 인프라 구축 박차

서울시가 미래선도 신기술 개발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인다.

1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양재·홍릉·마곡·G밸리 지역을 첨단 기술 핵심 공간으로 되살리기 위한 인프라 구축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시는 서초구 양재·우면동 일대를 글로벌 인공지능(AI) 플랫폼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135억9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인공지능 분야 기술 창업 육성 전문 기관인 '서울 AI 허브'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AI·R&D 옹거시설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서울을 글로벌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는 ▲AI 기술 적용 융·복합 교육으로 타 산업 기술 전환 촉진 ▲육·해·공군과 오픈이노베이션-테스트베드 프로그램 시행 ▲차별화된 재직자 역량 교육 실시 및 AI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

▲세계적인 인공지능 연구기관과 협력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으로 AI 기업 스케일업에 나선다.

AI 기반 타 산업 진출을 위한 인공지능·바이오 전문가와 AI·핀테크 전문가를 각 50명씩 양성하고, 방산 분야 기술 수요와 AI 기업을 매칭,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다. 또 시는 머신러닝 전문가 등 최고급 인재 120명과 반도체 설계 전문 엔지니어 70명도 육성한다.

/김현정 기자 hjk1@

고양, 시청 4개 부서 '백석 업무빌딩' 재배치

사무·주차공간 확보 차원

고양시는 최근 시청 소속 4개 부서의 백석 업무빌딩 재배치와 관련해, "시청사 이전이 아닌, 별관에 위치한 일부 부서 등의 재배치"라고 밝혔다.

시에서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 추진 중인 부서는 재산관리과와 도시혁신국 소속 3개 부서(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다.

이 중 재산관리과는 백석 업무빌딩을 관리하는 부서로, 담당 팀인 청사관리팀 4명이 건물 관리를 위해 백석 업무빌딩에서 2023년 6월부터 근무 중이며, 나머지 팀원(6명)은 시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신도시정비과 등 3개 부서는 시청 근

처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 중으로, 7월 말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사무실 계약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백석 업무빌딩은 금년 4월 고양시에 완전히 기부채납된 시 소유 건물로, 별도의 임차료가 들지 않고 당장 입주 가능하며 업무·주차 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사무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지난 4일 고양시의회 제 284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백석 청사 이전은 불법이다"라고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하여, "일부 부서 재배치의 경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 취준생 모여라" 청년수당 참여자 추가모집

서울시는 취업준비생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진로 탐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년수당' 참여자 4000여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이달 11일 오전 10시부터 6월 13일 오후 4시까지다. 희망자는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youth.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 거주 만 19~34세 시민 가운데 미취업 상태이거나 단기간으로 중인 청년(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서울 학생 미술작품 '메타버스'에 전시

제4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개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1일 미술 중점 '제4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를 온라인으로 개관한다고 10일 밝혔다.

제4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메타버스 플랫폼(METASSEM) 내 콘텐츠 형태로 개발됐다. 온라인 형태로 개관한 제4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에는 관내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제4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는 기존에 운영되던 ▲1센터(융합예술교육) ▲2센터-테

크&에코아트 ▲3센터(동아리활동 기반)와 차별화해 미술교육 중점 센터로 운영된다. 11일 개관일에는 초·중·고교 학생 미술 수업 결과물이 60점 공개되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학생 및 교원 작품이 매일 추가로 게시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추후 관내 학교 학생 작품 공모전을 시행해 더 많은 학생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제4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개관 및 학생 작품 전시를 통해 학생들의 예술 작품 창작 욕구를 자극하고 일상생활에서 예술을 향유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0 | 해질 / 19:53

6월 11일 (화)
음력 : 5월 6일

수도권 날씨
21 ~ 31 °C

운동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빨래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세차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외출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지역별 날씨: 연천 19/31, 동두천 19/31, 가평 18/32, 파주 18/29, 서울 21/31, 양평 20/31, 인천 19/26, 수원 21/30, 용인 21/30, 평택 19/3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푸틴, 이르면 이달 중 북한·베트남 방문 /사진 뉴시스
▲ 트럼프, 10일 보호관찰국과 화상 면담

▲ 뉴질랜드 럭슨 총리, 中·日 총리와 연쇄회담
▲ 日, 남북 오물풍선 확성기 긴장고조에 "경계 감시 전력"



▲ 한전, 인니와 신기술 협력 강화... 암모니아 혼소·HVDC 등 논의
▲ 예멘 후티 반군, 아덴만서 선박 두 척 공격 /사진 뉴시스